

뉴욕에서 유관순 열사의 합성을 외치다*

유 혜 경**

국문요약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 밖에 없어 슬프다는 말을 남기고 순국한 18세 소녀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조선의 독립을 염원했던 유관순 열사를 다시금 조명하고 있다. 뉴욕 주의회가 지난달 2019년 3월 1일을 ‘유관순 열사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일’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가 하면 뉴저지주의회 역시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있다. 4월 1일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 당시 유관순 열사의 부모는 일본 경찰에 살해당하였다. 유관순 열사가 시위 직후 몸을 피했지만 홀로 남겨진 두 남동생이 걱정돼 집을 찾았다가 일본 경찰에게 체포됐다. 100년 전 조국 독립을 위해 한마음으로 헌신했던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후손들이 잊지 않았으면 한다.

뉴욕에서 외치는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통해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한인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무시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100년 전 조국 독립을 위해 한마음으로 헌신했던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후손들이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이를 통해 한인들이 서로를 세워주고 보듬었으면 한다.

주제어: 유관순 열사, 조선의 독립, 뉴욕 주의회, 기념일, 조선독립

목 차

- | | |
|----------------------------|------------------|
| I. 서론 | IV. 뉴욕에서의 유관순 열사 |
| II. 유관순 열사 가계도 | 독립운동 조명 |
| III. 유관순 생가 및 생가 관리사
내역 | V. 앞으로의 방향 |

논문투고일: 2021.11.29. 논문심사일: 2021.12.08. 게재확정일: 2021.12.17.

* 본 논문의 사진들은 저자의 개인소장임을 밝힘.

**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객원연구원

I. 서론

유혜경은 대학 졸업 후 남편 김택용 목사와 함께 경기도 강화와 서울 상도동에서 목회 활동을 하다가 2006년 남편이 뉴욕으로 유학을 오면서 함께 왔다. 김택용 목사는 현재 뉴욕 흰돌제일감리교회 담임 목사이자 뉴욕서지방 감리사다. 처음에는 남편의 목회 활동을 돕느라 외부활동을 거의 못했다. 서울로 온 뒤 큰어머니(김정애 3·1여성동지회 명예회장)를 도와 3·1여성동지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3·1여성동지회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찾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한국에 본부가 있고 미주에는 LA에만 지부가 있는데 큰어머니께서 뉴욕에도 지부가 설립되길 바라셔서 이를 준비하고 있다. 할아버지께서는 자주 “일제 치하 시절 같은 한국인에게 냉대받고 괴롭힘 당하는 것이 더 힘들었다.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한인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무시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100년 전 조국 독립을 위해 한 마음으로 헌신했던 선조들의 정신을 후손들이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이를 통해 한인들이 서로를 세워주고 보듬었으면 하고 앞으로 이를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보관해왔던 가족사진들을 공개하고 설명함으로써 유관순 열사를 올바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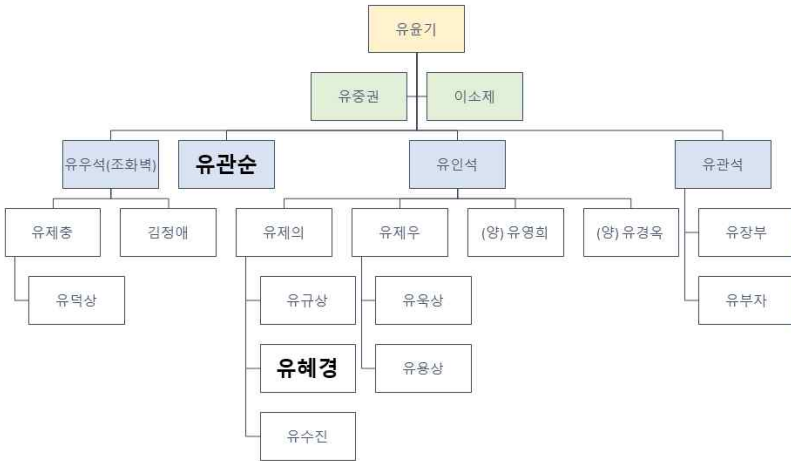
II. 유관순 열사 가계도

유관순 열사의 가계도를 통해 유관순 열사의 가족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유계출(1863~기록 없음), 유윤기(할아버지), 부모님은 유중권, 이소제이다.
2. 유우석(1899~1968) 조화벽(1895~1975) 며느리 김정애 여사
유우석은 유관순 열사의 친 오빠이다. 자녀로는 유제충, 며느리 김정애가 있으며 자녀로는 유덕상이 있다.
3. 유관순(1902~1920)
4. 유인석(1905~1977) 손녀 유혜경

유관순 열사의 친동생 유인석은 자녀로 유제의, 유제우, 양녀 유영희, 양녀 유경옥이 있다. 첫째 유제의 자녀로 유규상, 유혜경, 유수진이 있다. 둘째 아들 유제우 자녀로는 유옥상, 유용상이 있다. 뉴욕에서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외치고 있는 유혜경은 유관순 열사의 친조카의 자녀이다.

5. 유관석(1911~1943) 양자로 가게 된다.



<그림 1> 유인석 할아버지 양양, 원산 피신 시절



<그림 2> 유관순 열사 부모님 유중권, 이소제의 건국훈장과 애국장



<그림 3> 정부로부터 유인석이 전달받은 유관순 열사 원본사진

Ⅲ. 유관순 생가 및 생가 관리사 내역

유관순 열사의 생가는 1919년도에 방화로 소실되었다. 1945년도에 유관순 열사의 동생 유인석은 떠돌이 생활을 마감하고 병천면으로 이전하였다. 1977년도에 유관순열사의 동생 유인석은 사망을 하였으며 정부에서 생가를 한옥으로 건축하여 유관순 열사의 가족에게 생가지를 관리하면서 거쳐하도록 하였다.

<표 1> 생가 및 생가 관리사 내역

연도	내용	연도	내용
1919년	유관순 열사 생가 방화로 소실	1977년	유인석 사망
1945년 이후	유인석 가족 병천면으로 이전	1978년	유관순 생가터에 비석 제막 (현 초가집 자리)
1960년대	유인석 가족 거주주택 건축	1991년	생가터의 비석 이동 (현 생가 왼쪽)
1963년	순국처녀 유관순의 비 건립 (생가터)	1991년	12월 30일 유관순 생가를 복원 (현 초가집)
1965년	유혜경 병천면 용두리 출생	1997년	기와집 내부 리모델링
1972년	유관순 사적지, 봉화대 사적 230호 지정	2000년 이후	유인석 며느리 수술차 서울 상경후 입실 금지
1977년	유인석 거주 주택을 기와집으로 재건축	2021년	비워놓았던(13년) 기와집 리모델링 유인석 며느리 입주예정



<그림 4> 1960년대 유인석 가족 거주주택 건축 <그림 5> 1977년 유인석 할아버지 장례식



<그림 6> 1978년 유관순 순국처녀의 비 제막식 사진

1947년 유관순 기념사회 설립 되었고 그 사업의 하나로 유관순 기념비를 설립하였다. 유관순순국처녀의 비 제막식 당일 유우석, 조화벽, 유제충, 유인석, 유제의가 참석하였다.

IV. 뉴욕에서의 유관순 열사 독립운동 조명

<표 2> 뉴욕에서의 유관순 열사 독립운동 조명 내역

연도	내용
1921년 4월 28일	뉴욕 최초의 한인교회 창립, 매년 독립운동가 추모 행사
2018년 3월 29일	뉴욕타임즈 유관순 열사 부고기사 게재
2019년 1월 15일	매년 3월1일을 유관순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기로 결의안 채택
2019년 3월 1일	뉴욕 UN본부 앞 다그 함마슬드 광장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2019년 유관순 어워드	나소카운티 여고교생 유관순 전기, 독후감 에세이 대회
2019년 모린 가프니	모린 가프니 올프스

1921년 4월 28일-뉴욕 최초의 한인교회 창립하였고, 매년 독립운동가 추모 행사를 하고 있다. 망명한 독립지사들을 돌보고 독립자금을 모금했으며, 창립 교인 중 김마리아, 황기환, 염세우 포함 매년 독립운동가 후손을 초청하여 3.1절 기념 행사 진행하고 있다.



<그림 7> 뉴욕 최초의 한인교회 활동 기사

1921년 4월 28일-뉴욕 최초의 한인교회 창립하였고, 매년 독립운동가 추모 행사를 하고 있다. 망명한 독립지사들을 돌보고 독립자금을 모금했으며, 창립 교인 중 김마리아, 황기환, 염세우 포함 매년 독립운동가 후손을 초청하여 3·1절 기념 행사 진행하고 있다.

2018년 3월 29일-뉴욕타임즈 유관순 열사 무고기사 개제되었다. 2019년 3월 1일 합머슈드 광장 행사에서 뉴욕 3·1절 기념행사 500여명이 참석하였고 한국관에서 이화여고 동문 33인이 3·1절 노래를 제창하였다. 천안시와 여성경제인협회에서 한복 300벌을 협찬하였다.

March 28, 2018

OBITUARIES

Overlooked No More: Yu Gwan-sun, a Korean Independence Activist Who Defied Japanese Rule

When a call for peaceful protests came in spring 1919, a schoolgirl became the face of a nation's collective yearning for freedom.

By Inyoung Kang



PRINT EDITION
March 29, 2018

March 1, 2019

NEW YORK

South Koreans in New York Celebrate a 100-Year-Old Independence Movement

About 200 people gathered in Midtown Manhattan on Friday to commemorate a movement against Japanese rule that helped to unify Korea.

By Niraj Chokshi



PRINT EDITION
March 2, 2019

Overlooked No More: Yu Gwan-sun, a Korean Independence Activist Who Defied Japanese Rule

When a call for peaceful protests came in spring 1919, a schoolgirl became the face of a nation's collective yearning for freedom.



Yu Gwan-sun took an active part in the March 1, 1919, independence movement against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 Dying in prison at 17, she became a national hero.

<그림 8> 2018년 3월 29일 뉴욕타임즈 유관순 열사 부고기사

뉴욕타임즈가 아시아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인물’로 주목하여 선정한 것과 뉴욕이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제정하였다.



<그림 9> 2019년 1월 15일,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기로 결의한 채택 기사



<그림 10> 결의안과 결의안 전달식 사진

뉴욕 뉴저지 한인회는 3·1절을 유관순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의 상정을 위해 주 하원의원 '롱감'이 노력했고 이것이 뉴욕 뉴저지 의회에서 상정되고 그 결과로, 2019년 1월 15일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그림 11> 2019년 3월 1일 뉴욕 UN본부 앞 다그 합마솔드 광장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그림 12> 유혜경 유관순 열사 재현 사진



<그림 13> 2019년 천안시와 뉴욕주 낫소카운티 자매결연과 장학금 지원 사진



[그림 14] 2019년 유관순어워드 나소카운티 여고교생 유관순 전기, 독후감 에세이 대회 사진

천안시와 뉴욕주 낫소카운티는 자매결연을 맺었고, 여성경제인협회·세종충남지회에서 2천불의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그림 15> 2019년 모린 가프니 울프슨의 유관순 그림

로스앤젤레스 인근 칼라바사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 화가 모린 가프니 울프슨 씨는 항일 독립운동의 표상인 유관순 열사를 그린 작품 4점을 전시회에 내놓았다. 그녀는 전시회에 앞서 “그분(유관순 열사)이 어떻게 16살에 투옥되고, 조롱당하고, 고문받았는지 알고 제 마음은 둘로 쪼개졌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3·1운동에 대해 알아보며 모린 가프니 울프슨 씨는 아주 어렸음에도 용감했고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유관순 열사의 아주 강한 영적인 연결고리를 느꼈다고 한다.

V. 앞으로의 방향

1. 유관순 열사의 애국 독립정신을 청소년들에게 전파

유관순 열사의 나라를 사랑하는 독립정신을 청소년들에게 널리 전파하고 그 정신을 본받았으면 한다.

2. 유관순 열사 정신을 계승할 유관순 회관 건립

지속적으로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길 원하는 마음에서 유관순 회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유관순 회관을 통해 더욱 그 정신을 기리고 본받을 수 있다.

3. 천안시 각 단체와 협력하여 독립지사 선양 운동

유관순 열사의 고향 천안은 유서가 깊은 곳으로 각 단체와 협력해서 독립지사들을 더욱 발굴하고 선양운동에 힘쓰고자 한다.

4. 여 고교생 유관순 열사 에세이 대회 개최

유관순 열사의 정신과 활동을 본받고 기념하는 의미로 유관순 열사 에세이 대회 등 개최를 통해 지속적인 행사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의 장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5. 시니어 유관순 열사 기억 기록 대회 개최

지금까지 유관순 열사에 대한 많은 기록이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현장에서 독립운동을 외쳤던 선조들의 자녀, 관련업무 종사자, 역사발굴자 등을 통해 유관순 열사의 많은 흔적과 역사적인 기록 등을 발굴하고자 한다.

6.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독립운동사 재조명

지속적으로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을 재조명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유관순 열사 재조명에 앞장서야 한다.

참고문헌

- 박영순(2011), 「천안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열사의 사적지」, 『국토』, 12, 183쪽.
- 정은혜(2021), 「역사문화관광지로서 천안의 역사경관에 대한 잠재력 고찰: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열사 사적지를 사례로」, 『국토지리학회지』, 5(3), 275-290쪽.
- 강원도민일보, 「5·18폭동 삼점일절... 학생 역사인식 실종」, 2013년 5월 23일자.
- 한국일보, 「유관순 열사 업적 미국서 재조명... 감격스러워」, 2019년 2월23일자.
- New York Times, 「Overlooked No More: Yu Gwan-sun, a Korean Independence Activist Who Defied Japanese Rule」, Posted April 2, 2018
- 천안시(URL: https://www.cheonan.go.kr/prog/turismGn/tour/sub01_09_07/view.do?pageIndex=5&cntno=12)
- 천안시 유관순 열사 기념관 (URL: https://www.cheonan.go.kr/yugwansun/sub03_02_01.do)

Raise the Shout of Patriotic Martyr Yu Gwan-sun in New York

hye kyung You*

The patriotic martyr Yu Gwan-sun was 18 years old when she died for the country. She said she was sad because she had one life devoted for the country. She was considered as the symbol of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centennial year of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the patriotic martyr Yu Gwan-sun who longed for the independence of Joseon is highlighted again in USA. New York State Council adopted the resolution to designate March 1, 2019 as the 'Yu Gwan-sun Day to Commemorate Her Achievement' last month. Moreover, New Jersey City Council will adopt the resolution to designate March 1 as the Yu Gwan-sun Day. The parents of the patriotic martyr Yu Gwan-sun were killed by Japanese police in Awunae Market on April 1 dur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While her parents escaped right after the independence movement by the patriotic martyr Yu Gwan-sun, they came back home because of their two sons, but arrested by the Japanese police. The descendants shall not forget the spirit of the patriotic martyr Yu Gwan-sun who devoted herself for the independence of the country with one mind 100 years ago.

With the spirit of the patriotic martyr Yu Gwan-sun shouted in New York, there should be no conflicts among the Koreans living in USA. The descendants shall not forget the spirit of the patriotic martyr Yu Gwan-sun who devoted herself for the independence of the country with one mind 100 years ago. Through her spirit, we need to take care of and support each other.

Keyword: Patriotic Martyr Yu Gwan-sun, Independence of Joseon, New York State Council, Commemorative Day, Independence of Joseon

* Visiting Researcher, Yu Gwan-sun Research Institute, Baekseok University